

퀸즈 보로장

Melinda Katz (D, WF)

안녕하세요. 저는 퀸즈 보로장 경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멜린다 카츠입니다.

제 가족은 퀸즈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데이비드는 퀸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설립자이자 지휘자이셨고, 제 어머니 진은 퀸즈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이곳 퀸즈에서 살았고, 제가 퀸즈 공립학교 졸업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포레스트힐 제가 자란 집에서 제 어린 두 아들 헌터와 카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곳을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곳으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퀸즈 보로장직에 출마했습니다. 저에게는 퀸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제 삶을 공익을 추구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저는 8년 간 시의원으로 제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토지사용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정부-민간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해 총 만 5천 채가 넘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뉴욕시 전반에 걸친 구획변경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지역을 과잉개발에서 보호하면서도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 저는 클레어 술만 보로장 아래서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책임자로 일하였고,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지역사회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또 그 전에는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도시보건 소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건강관리기구들이 여성에게 중요한 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공립병원의 민영화를 중단하기 위해 줄리아니 시장에 맞섰고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또한 저는 역사적인 켄달 법을 지지하고 통과시켜 검찰이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보로장으로서 우리가 퀸즈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부 퀸즈에 기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을 함께 운영하게 하는 co-location 제도를 중단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도록 전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라커웨이와 남동부 퀸즈를 재건하고 교통 시설을 늘리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또한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우리가 모두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일에 여러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퀸즈 보로장

Aurelio Antonio Arcabascio (R)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오 아르카바시오입니다. 모두 그냥 토니라고 부르지만요. 저는 퀸즈 보로장직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4 살까지 아스토리아에서 살았고, 이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잭슨하이츠에서 살았습니다. 저에게 퀸즈에서 보낸 성장기와 1 학년부터 8 학년까지 공립학교에 다니며 쌓은 기억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마터 크리스티 고등학교(현 세인트 존스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야구선수로 활동했고 학교와 교구에서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Our Lady of Fatima Blue Lancers 드럼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얻은 건 단순히 밴드에서 연주한 경험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제 자녀들도 누렸으면 참 좋았을 유년기를 저는 보냈습니다.

우리가 활동적일 수 있던 것은 지역단체들이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들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보로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기회를 복원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또 능력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을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보로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퀸즈는 뉴욕시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뉴욕 다른 곳에 가는 길에 우리 동네들을 지나면서 "돌아가는 길에 한 번 꼭 들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 퀸즈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